

국어교육과 방언

이기갑*

<차 례>

1. 시작하면서
2. 한국의 표준말
3. 표준말과 방언
4. 방언의 아름다움
5. 방언의 이용
6. 국어 교육과 방언
7. 맺으면서

1. 시작하면서

방언은 시간, 공간, 계층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실현되는 언어의 변이 양상이다. 이 가운데 공간 즉 지역에 따른 변이를 ‘지역방언’, 세대나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에 따른 변이를 ‘사회방언’이라 부른다. 따라서 방언은 지역방언과 사회방언을 아우르는 상위의 개념이다. 한국에서 방언을 흔히 지역방언과 동일시해 왔던 것은 한국 방언학의 출발이 지역방언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방언에 대한 이해가 강화되면서 방언은 사회방언까지 아우르는 넓은 의미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방언을 표준말과 대립시켜 이해하는 수가 많다. 국가에서 정한

* 목포대학

표준말이 아닌 변이체를 방언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표준말이 흔히 수도의 언어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방언은 곧 수도 이외 지역의 언어를 가리키게 되는 셈이다.

국어 교육은 토박이들에게 우리말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고, 효과적인 언어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런데 방언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장애물의 구실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방언이 국어 교육에서 소홀히 다루어져 왔던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지방 자치의 시대가 열리고, 문화의 다양성이 강조되면서, 방언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드라마에서 시골 사람 또는 낮은 신분의 상징으로 쓰였던 방언이 최근에는 서슴없이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의 뉴스나 대담과 같은 ‘고급’ 프로그램에까지 등장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처럼 방언에 대한 거부감이 약화되면서 교육 현장에서 방언이 차지하는 위치도 재고해 볼 필요가 생겼다. 과연 교육 현장에서 방언은 교육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교육의 대상이 된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살펴보는 것이 이 글의 주된 목적이다. 그러나 글쓴이가 국어 교육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방언 가운데 사회방언에 대한 지식도 불비한 탓에 지역방언을 중심으로 피상적인 논의를 펼칠 수밖에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또한 방언은 음운, 문법, 어휘 등 다양한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주로 어휘에 국한하고자 한다. 국어 교육의 대상으로 삼을 만한 분야가 어휘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2. 한국의 표준말

2.1. 표준말의 필요성

표준말은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교육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

해 필요하다. 서로 자신의 방언만을 고집할 경우, 소통의 장애가 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실제 중국과 같이 아예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방언들로 이루어진 언어의 경우, 표준말(중국의 경우 ‘보통어’라 부른다)이 없다면 국민들 간의 의사소통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의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다. 따라서 이런 나라의 경우 표준어의 제정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도 중국보다는 정도는 덜하지만 방언 차이가 심한 편이다. 대체로 역사가 길고, 산악 국가일수록 방언 차이가 심한데, 영국이나 이탈리아가 대표적이며, 우리나라도 같은 범주에 들 수 있을 것이다. 낱말의 경우, 기원이 전혀 다른 낱말들을 사용하는 수도 있지만, 기원이 같더라도 역사적인 변화 과정이 달라서 현재의 상이한 방언형을 형성하는 수도 많다. 기원이 다른 낱말을 쓰면 아예 이해가 불가능하지만, 기원이 같더라도 겪은 음운 변화의 정도가 심하면 이 역시 이해에 장애를 초래한다. 그래서 하나의 사물에 대해 다양한 방언형이 생겨나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그 가운데 어느 하나를 표준으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 표준말, 특히 표준 낱말을 굳이 제정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또한 국가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적인 교육 역시 표준말에 의해서, 그리고 표준말을 위해서 이루어진다. 표준말은 그 나라의 공통어이므로 지역과 계층을 초월하여 적용되는 언어이다. 따라서 모든 지역, 모든 계층이 배우는 교과서나 교육 내용은 마땅히 표준말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표준말은 정착되고, 퍼져나가게 된다. 표준말은 교육의 수단인 동시에 교육의 대상이며, 교육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그래서 교육을 받은 사람일수록 표준말의 사용 비율은 높은 법이다.

표준말은 자연히 발생하여 성립되는 경우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제정하는 수가 많은데, 이런 경우, 수도나 문화 중심지의 교양 있는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표준말의 기반이 되는 것이 보통이다. 영국의 런던어, 프랑스의 파리어, 일본의 도쿄어(NHK 언어), 한국의 서울말 등은 모두 이런 예에 속한다. 여러 방언 가운데 가장 큰 세력을 가진 문자나 언어가 표준말의 기반이 되는 일도 있다. 예를 들면 독일에서는 종교개혁으로 유명한 루터

의 독이어가,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는 단테, 페트라르카, 보카치오 등이 작품에서 사용한 피렌체시(市)의 상류사회 언어가 표준말의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두산백과사전).

한국에서 표준말은 맨 처음 사전의 편찬 때문에 그 필요성이 인식되었다. 사전에 올릴 표제어를 선정함에 있어, 여러 지역, 다양한 사회적 요인에 따른 다수의 변이형들 가운데 대표적인 하나 또는 소수의 형태를 선정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930년 당시 ‘먼저’와 같은 의미로 ‘몬저 먼점 먼저 먼침 먼침’ 등의 다양한 어형이 사용되었지만, 당시 학자들은 ‘먼저’를 표준말로 삼고 이를 사전의 표제어로 실었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갈고리 갈꾸리 갈코리 갈구지 갈쿠지 갈고랑이 갈구랑이 갈코장이 갈꾸장이’ 등의 다양한 변이형들 가운데 ‘갈고리’를 표준말로 삼기에 이르렀다(김세중 2004).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표준말을 성문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느슨하게 수도의 말을 표준으로 삼는다거나 아니면 국영방송의 말을 표준어로 이해하는 정도일 뿐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낱말과 소리 등에 대한 표준말의 범위를 정해 놓아서 다른 어떤 나라에 비해서도 엄격한 편이다. 이렇게 엄격한 성문적 규정을 해 놓으면, 표준어와 비표준어의 구별이 분명해서 표준말은 그 자체로 폐쇄적인 속성을 지니게 되는 약점을 갖게 된다. 그야말로 사람들이 널리 쓰게 되면 비표준어도 표준어의 범주 속으로 들어올 수 있어야 하는데, 엄격한 성문적 규정 때문에 이러한 넘나들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2.2. 표준말의 한계

표준말은 불변의 언어가 아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표준말도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36년에 ‘사정한 조선말 표준말 모음’이 나온 뒤 50 여년이 흐른 1988년 표준말 규정이 바뀌기에 이르렀다. ‘조선어 표준말 모음’의 일러두기에 따르면, “표준말은 대체로 현재 중류

사회에서 쓰는 서울 말로써 으뜸을 삼되, 가장 널리 쓰이고 어법에 맞는 시골 말도 적당히 참작하여 취하였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1988년에 개정된 표준어 규정 총칙에는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중류사회’라는 계급적 기준 대신 ‘교양 있는’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표준말 자체가 엄격한 기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스스로 보인 것이다.

실제 글쓴이의 경험에 의하면 1988년에 바뀐 새로운 표준말 때문에 적지 않게 당황한 적이 있다. 글쓴이가 어렸을 때, 즉 60년대에는 찜을 짜 먹을 수 있는 채소인 상추를 ‘상치’라고 하였다. 당시 글쓴이의 고향에서는 ‘상추’가 일상적인 낱말이었지만, 표준어 교육에 의해 억지로 ‘상치’라고 배우고 익혔던 기억이 난다. 그래서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했던 ‘상추쌈’ 대신 어색하고 부자연스럽지만 나라에서 정한 표준말인 ‘상치쌈’을 쓰려고 애를 썼다. 그런데 1988년에 바뀐 새로운 표준말 규정은 지금까지 애써 배워 왔던 ‘상치’를 비표준어로 규정하고, ‘상추’를 새로운 표준어로 삼아 놓았다. 이제 그동안 애써 배우고 익혔던 ‘상치’를 버리고 고향말과 같은 ‘상추’를 써야 할 신세가 된 것이다. 고향말이 표준말이 된 것은 기쁜 일이지만, 규정이 바뀌면 애써 배우고 익힌 표준말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경험은 충격적이었다. 그렇다면 1988년 개정된 표준말에서는 왜 ‘상추’를 표준말로 정했을까? 그것은 규정 총칙에 따라 서울의 교양 있는 사람들이 ‘상추’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서울에 사는 다수의 사람이 말하면 그것이 표준말로 승격될 수 있는 것이다. 2음절의 ‘무우’ 대신 1음절의 ‘무’가 표준말이 된 것도 같은 이치이다.

이상에서 실감하는 바와 같이 표준말이란 규정하기에 달린 것이다. 흔히 서울말을 표준말로 오해하고 있지만, 서울말에도 사투리가 있어서 표준말과 서울말이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다. 몇 대째 서울에서 살아온 서울 토박이들의 말과 나라에서 정한 표준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표준말은 서울에 사는 교양 있는 사람들 다수가 사용한다고 판단된 말일 뿐인데, 그 판단은 표준말을 심의하는 위원들이 내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심의위원들은 무엇에 근거하여 표준말을 심의하는 것일까? 교양

있는 서울 사람들의 말을 엄밀하게 수집, 조사하고, 이들의 말뭉치를 분석하여 각 낱말의 빈도를 측정한 뒤에 심의 결과를 내놓는 것일까? 아마도 그렇지 않은 것일 것이다. 글쓴이는 그러한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대체로 심의위원의 직관적인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표준말은 그 존재 이유는 분명하나, 이를 완벽하게 규정할 기준의 설정은 이론적으로 불가능하고, 만들어진 기준을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적용하는 일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정이야 어떻든 일단 정해진 표준말은 그대로 따르고, 배우고, 익히지 않으면 안 된다. 표준말은 결코 거부할 수 없는 존재 이유를 갖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표준말은 절대선이 아니며,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실용적 산물이라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3. 표준말과 방언

방언을 표준말과 대립하는 지위로 이해할 때, 방언은 비표준어가 된다. 그리고 교육 현장이나 공적인 언어생활에서는 사용해서는 안 될 말이 되어 버린다. 그 결과 방언은 표준이 되지 못한 언어이며,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말이라는 인상을 주게 된다. 특히 표준어가 교양 있는 사람이 쓰는 말이라는 규정 때문에 방언 사용자는 졸지에 교양이 없거나 교양과 무관한 사람으로 전락하는 결과도 낳게 된다.

흔히 언어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정신세계 그리고 물질세계를 반영한다고 한다. 정신세계나 물질세계를 통틀어 문화라 부른다면, 언어는 그 지역 문화를 반영하는 거울인 셈이다. 언어는 오랜 세월을 걸쳐 생성된 것이다. 그 말을 사용해 왔던 사람들이 역사와 생각, 삶이 녹아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언어를 문형의 문화유산이라고 이해한다. 그렇다면 방언은 그것이 쓰이는 지역의 문화유산인 셈이다. 표준어는 효율적인 의사소통과 통일된 국어 교육을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존재이다. 그러나 이러한 표준어를 지나치게 고집할 경우, 방언이 갖는 우리말의 다양성이 사라지게 된다. 말은 곧 문화이며, 무형의 문화유산일 텐데, 표준어에 눌러 사라지는 세태를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겠는가?

지구상에는 해마다 수십 또는 수백 개의 언어가 사라지고 있다. 언어는 말하는 사람이 없으면 사라지는 법이다. 마찬가지로 방언도 말하지 않으면 사라진다. 방언을 사라지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표준어이다. 같은 뜻을 표현하는 표준어가 있을 경우, 세력이 있는 표준어를 씌으로써 지역 방언은 덧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표준어는 방언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월등히 강한 언어이다. 이런 탓에 ‘술, 줄, 소불, 정구지’ 등으로 다양하게 쓰이던 말이 어느새 ‘부추’로 통일되어 가고 있다. 표준어의 위력이란 이처럼 대단한 것이다.

물론 공적인 말하기, 글쓰기 등에서는 표준말이 당연히 쓰여야 한다. 그러나 사적인 영역에서조차 방언이 쓰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방언의 사멸을 말해 주는 분명한 증거라 할 수 있다. 실제로 같은 가족 내에서 70대 이상의 부모와 40대의 자식의 언어를 비교해 보면 70대는 전체 발화의 50% 이상이 비표준어인 방언 어휘인 반면, 40대의 방언 사용률은 훨씬 떨어진다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이기갑, 2008). 이처럼 방언은 급격한 속도로 사라지고 있으며, 우리말은 표준어로 통일되어 가고 있으니, 우리말의 다양성은 그만큼 사라지고 우리말의 유산도 파괴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라지는 방언을 보존하고 되살리는 작업은 분명히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인데, 이를 위해서는 방언의 조사와 기록, 보존 등과 함께 방언을 살려 쓰는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다만 표준말과의 모순, 충돌을 극복하는 문제가 관건일 것이다.

4. 방언의 아름다움¹⁾

방언은 표준어로 표현할 수 없는 다양한 표현을 가지고 있는 언어이다. 그래서 방언을 깊이 있게 살펴보면 우리말의 아름다움에 새삼 감탄을 금하게 된다. 우리는 방언이 갖는 아름다움에 대해 그 성격을 몇 가지로 나누어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시치기 전에 살망살망 비베야 보들보들해. 그럴 직에 너머 많이 비비른
 풋네 나네잉. 인자 살살 시쳐서 찜솔에 앙쳐. 짐이 들었다 싶으른 잎삭을 내
 봐서 몰랑허른 그만 쩌. 근디 너무다 방정맞게 꺼내른 안 익어서 꺼랍네잉.
 글고잉 인자 양념장을 맨드느디 집이가 매운 것 좋아허른 장에다 쟁고추를
 몽글몽글 썰어 넣고 알큰허니 허른 더 맛나. 마늘 넣고 파도 쫙쫙 썰고 깨
 넣고 지름 나수 넣고 고춧가루다 엔간히 넣고. 근디 너머 매웁게 허른 호박
 잎 맛이 감해 붙어. 어우러지게 맨들어야제. 그래 갖고 어째? 인자 서방이랑
 양거서 맛나게 묵어야제.

—『전라도닷컴』 2003년 9월호에서

위의 글은 광주 재래시장의 하나인 ‘말바우 시장’에서 호박잎을 파는 할머니의 생생한 전라도말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물론 실제의 말에는 여기에 전라도 특유의 억양이 얹혀질 것이나, 이렇게 글로만 옮겨도 토박이의 유창한 말솜씨가 그대로 느껴진다.

방언은 일반적으로 촌스러운 말, 교육 받지 못한 말, 때로는 상스러운 말로 인식되어 왔다. 그래서 방언을 없애야 할 우리말의 잡초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는 않다. 실제로 시골에 조사를 나가 보면 현지인들로부터도 ‘우리 동네는 사투리가 별로 없다’는 말을 흔히 듣곤 한다. 방언을 특별한 말로 인식하는 탓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방언에 대한 사람들의

1) ‘방언의 아름다움’은 이기갑(2007)을 약간 수정한 것이다. 원래는 ‘전라도 방언의 아름다움’이란 제목의 글이었지만 특정 방언에 한정되지 않고 방언 전체의 일반적인 서술로 보아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여기에 실었다.

부정적인 생각을 드러내는 반응일 것이다.

그러나 위의 인용문이 보여 주듯이 방언은 그 지역 토박이들의 일상적인 삶을 지배하는 언어다. 그 말은 일시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거쳐 사람들의 삶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거기에는 그 지역 사람들의 생각과 사는 방식이 그대로 녹아 있다. 표준말은 이러한 방언의 다양성 때문에 빚어지는 소통상의 어려움을 없애기 위한 편의적 수단일 뿐이다. 그래서 표준말과 방언 사이에는 매우지 못할 틈이 있는 것이다. 물론 표준말을 만들 때 서울말뿐 아니라 여러 지방의 방언도 상당히 고려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지만, 표준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수많은 느낌, 물건, 상황 등이 있기 때문에 요즘처럼 온 나라의 말이 표준화, 단일화되어 가는 이 시기에도 방언은 그 나름의 가치를 잃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방언의 쇠락은 그만큼 우리말의 풍성함을 잃어가는 ‘문화적 비극’으로 이해해야 옳을 일이다.

4.1. 아름다운 꾸밈말

전라도 방언 가운데 동작이나 모습을 꾸미는 말들은 특별히 이 지역 말의 아름다움을 드러낸다. 위 인용문의 ‘살망살망 비비다’, ‘몽글몽글 썰다’에서 사용된 ‘살망살망’, ‘몽글몽글’과 같은 표현이 이런 예이다. ‘살망살망’과 비슷한 소리를 가진 표준어에 ‘살망하다’가 있는데, 이 말은 <아랫도리가 어울리지 않게 가늘고 길다>를 뜻하기 때문에 전라도말의 ‘살망살망’과는 전혀 다른 낱말이다. 위 인용문에서 ‘살망살망’은 부드럽게 비비는 동작을 형용하고 있다. 어원은 ‘살살’과 같을 것이나 여기에 접미사 ‘-망’이 덧붙여 다른 말맛을 풍기는 것이다.²⁾ 예를 들어 ‘살살’ 때릴 수는 있겠지만 ‘살망살망’ 때리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살망살망’은 ‘살살’

2) 접미사 ‘-망’은 ‘골망골망’이나 ‘뽕망뽕망’에서도 확인된다. ‘골망골망’은 ‘골골’과 거의 같은 뜻이나 ‘뽕망뽕망’은 ‘뽕뽕’과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뽕망뽕망’은 아이의 초롱초롱한 눈의 모양을 형용할 때 주로 쓰는 말이기 때문이다.

보다도 훨씬 부드러운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라 하겠다.

전라도말 ‘몽글몽글’과 같은 형태의 표준말 ‘몽글몽글하다’는 <망울진 물건이 말랑말랑하고 매끄럽다>의 뜻을 갖지만 위의 인용문에 나오는 전라도말 ‘몽글몽글’에서는 이런 뜻은 찾아지지 않는다. 인용문의 ‘몽글몽글’은 <잘고 둥글게> 정도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전라도말이 ‘몽글몽글’의 한 낱말로 표현하는 상황을 표준말은 ‘잘고 둥글게’라는 복합적인 구 형식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매우 어쭙은 결과가 빚어지게 되는 셈이다.

전라도말에는 이와 같이 우리말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다양한 꾸밈말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 ‘멜치 밋 마리 비베 넣고 마늘 넣고 물 쪼까 치고 다갈다갈 볶아’, ‘물컹허니 쫄아노른 별컹허니 안 맛나. 쌀각쌀각 씹혀야제’, ‘무칠라른 된장기를 사르라니 허른 지폰 맛이 나제’ 등과 같은 예에서 보이는 ‘다갈다갈’, ‘별컹허니’, ‘쌀각쌀각’, ‘사르라니’와 같은 말들도 이런 예이다.³⁾

4.2. 정이 담긴 말

전라도 문화 가운데 특히 타 지역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이른바 ‘성님 문화’라는 것이 있다. 만나면 그냥 친해져서 서로 ‘성님’, ‘동생’ 하고 부르며, 이런 부름이 단지 호칭에 그치지 않고 상부상조하는 생활로까지 이어져, 합리성보다는 사적인 관계를 중요시하는 ‘정(情)의 문화’로 발전된다는 것이다. 사실 과장된 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서울에 비해 지방이, 그리고 도시에 비해 시골이 정을 중요시하는 것은 분명하므로, 이런 정 의 문화가 전라도 문화의 한 특징을 이룬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화 탓인지 전라도말에는 정 의 문화를 드러내는 표현들이 상

3) ‘사르라니’는 ‘사르르 하니’가 축약된 말로 보인다.

당수 쓰이는데, 위의 인용문에서 ‘잉’으로 표기된 말이 그 전형적인 예이다. ‘뜻네 나네잉’, ‘안 익어서 꺼랍네잉’, ‘글고잉’과 같은 말의 ‘잉’은 사실 정확한 표기는 아니다. 실제의 발음은 ‘잉’이 아니라 ‘이’에 콧소리가 얹혀진 것이기 때문이다. ‘안 익어서 꺼랍네잉’처럼 ‘잉’을 쓰면, ‘술에 넣어 둔 호박잎을 너무 방정맞게 급히 꺼내면 충분히 익지 않아서 호박잎의 촉감이 걸끄러워진다’는 충고의 말에 말하는 이의 따뜻한 정과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듬뿍 실어 표현할 수 있다.

말하는 이의 정이 담긴 또 다른 예로서 ‘웨’와 같은 말을 들 수 있다. 이 말은 주로 할머니들이 귀여운 손자 손녀들 또는 나이 어린 사람들에게 쓰는데, ‘우리 갱아지 집이 잘 갔다가 다시 오소웨’처럼 쓰인다. 갱아지처럼 귀여운 손자가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 할머니 집을 방문하였다가 다시 제 집으로 돌아가는 참이다. 할머니는 손자와의 헤어짐이 못내 섭섭한지라 한편으로 작별의 인사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다시 올 것을 간절히 바란다. 이런 할머니의 간절한 소망이야말로 이 문장의 마지막 말 ‘웨’가 없다면 도저히 표현할 길이 없는 것이다.

전라도말에서 ‘아집’은 원래 숙모 향렬의 친척을 가리키는 말이다. 한 집안에 숙모 향렬이 여럿 있을 때에는 이를 구별하기 위해서 친정 지명을 앞에 붙여 부른다. 그래서 ‘곡성 아집’, ‘함평 아집’과 같은 호칭이 생겨나게 된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는 이 ‘아집’을 친척이 아닌 사람에게도 쓰는 수가 있다. 한 동네에서 오래 같이 산 아주머니를 ‘아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것은 친척이 아닌 사람을 마치 친척처럼 친근하게 대접하려는 마음 때문이다. 광주 MBC 방송에 ‘말바우 아집’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이 있다. ‘말바우’는 광주의 두암동 지역의 원래 이름이고, 여기에 ‘아집’이라는 말을 붙여 ‘말바우에 사는 아주머니’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제목이다. 그러나 ‘말바우 아주머니’라고 하면 라디오 청취자와 아무런 교감이 없는 낯선 사람으로 느껴진다. ‘말바우 아집’이라고 할 때에야 비로소 말바우 시장에서 장사하는 친근하고 정이 많은 아주머니임이 실감나게 된다. 이처럼 ‘아집’은 원래 친척을 가리켰던 말이기 때문에 이를 친척이 아닌 사람에게 쓸 때에는 자연히 친척에게 느꼈던 다정함과 친근함이 묻어

나게 되는 것이다. 붙임성이 있는 남자들은 이 ‘아집’에 ‘씨’를 붙여 ‘아집 씨’라 하기도 하는데, 이 ‘씨’는 전라도 남자들이 ‘성수’(형수)나 ‘제수’ 등에 붙여 상대에 대한 각별한 다정스러움을 표현하였던 말이다. 이런 ‘씨’를 ‘아집’에 붙여 식당이나 시장의 아주머니들을 다정하게 부르는 것이 또한 전라도 남자들의 정감어린 말법인 것이다.

4.3. 생생한 말

의성어나 의태어는 그야말로 구체적인 소리나 모습을 형용하는 말이니, 낱말 가운데서도 가장 생생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의성어나 의태어를 많이 사용하면 그만큼 언어의 현장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된다. 예를 들어 보통의 다리는 철근을 넣어 콘크리트로 만들지만 경우에 따라 이런 정상적인 다리를 만들기 어려울 때가 있다. 차가 다니지 않을 정도의 좁은 다리일 때는 굳이 콘크리트처럼 단단한 다리를 만들 필요가 없을 터인데, 이런 곳에는 흔히 구멍이 숭숭 뚫린 철판으로 임시적인 다리를 놓는 수가 있다. 이런 다리를 전라도말로로는 ‘뽕뽕다리’라고 하는데, 이 이름에는 구멍이 뽕뽕 뚫려 있는 모양이 그대로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대머리는 머리가 벗겨진 사람이다. 표준말에서는 머리가 벗겨진 것을 묘사할 때 ‘홀렁’이나 ‘홀떡’과 같은 꾸밈말을 쓰지만, 전라도말은 ‘할딱’이란 말을 쓴다. 그런데 전라도 사람들은 이 ‘할딱’이란 부사로 ‘할딱보’라는 새로운 낱말을 만들었으니, 이 말은 <머리가 홀떡 벗겨진 사람> 곧 대머리를 가리키는 말이다. 물론 이 말은 상대를 좀 낮추어 말하는 느낌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대머리를 이만큼 생생하게 표현할 만한 말도 찾기 어려울 것 같다. ‘곰보’를 뜻하는 전라도말 ‘뺨보’도 마찬가지다. 표준말에는 동사 ‘굶다’에서 온 ‘곰보’와, ‘엷다’가 포함된 ‘엷둑빼기’나 ‘엷빼기’와 같은 말이 같은 뜻으로 쓰인다. 동사 ‘엷다’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부사 ‘박박’이나 ‘뺨뺨’과 같은 말이 흔히 쓰이는데, 이 점은 표준말이나 전라

도말이 다를 바 없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전라도 사람들이 이 ‘빡빡’으로 ‘빡보’와 같은 말을 만들었다는 점이다. ‘할빡보’처럼 ‘빡보’도 얼굴의 엷은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해 주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로 하겠다.

전라도말에는 생생한 느낌을 주기 위해 특별한 비유를 하는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거짓칼로’와 같은 표현이 그것이다. 표준어로는 ‘거짓말로’로 옮길 수 있지만 이 말이 경우에 따라서는 극히 적은 양을 가리킬 때가 있다. 예를 들어 ‘칼로 썰면 안 맛나. 인자 주먹 안에 넣고 살찌기 거짓칼로 짜.’라고 하면 삶은 가지를 주먹 안에 넣고 살그머니 짜라는 말을 하면서 살그머니를 강조하기 위해 ‘거짓칼로’라는 꾸밈말을 덧붙였다. <마치 거짓말인 것처럼 약하게>라는 뜻이다. ‘마늘 넣고 깨 참지름 넣고 띄작띄작 무쳐. 미원도 넣고 그래야 맛나. 거짓칼매니로 치면 암시랑토 안혀.’에 쓰인 ‘거짓칼매니로’는 표준말의 ‘거짓말처럼’으로 옮길 수 있는 말인데, 이 역시 조미료를 아주 소량 넣으면 아무렇지도 않다는 뜻으로 한 말이다. 표준말에서도 ‘그 약을 먹었더니 거짓말처럼 쉽게 나았다’와 같은 경우에 쓰인 ‘거짓말처럼’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의 뜻이다. 이런 경우 ‘쉽게’나 ‘빨리’와 같은 뜻을 내포한다고 할 수 있는데, 전라도말은 이런 짧은 시간이 아니라 적은 양을 가리키는 점이 표준말과는 다른 것이다.

우리의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물건으로 빗대어 은유적으로 표현하면 그만큼 언어의 생생함은 더해진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빗줄기의 굵기에 따라 ‘장대비’, ‘가랑비’, ‘이슬비’ 등으로 나뉘는데, 전라도말에는 여기에 더하여 이슬비보다 더 가는 빗줄기를 가리켜 ‘털비’라 부르기도 한다. 아마도 빗줄기가 털처럼 가늘게 내리기 때문일 것이다.

참은 식량이 귀하던 시절 배고픔을 달래주던 귀중한 요것거리였다. 그런데 참 가운데도 씹으면 딱딱하고 쓴 물만 나오는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씹을수록 달고 알갱이가 씹히는 것이 있다. 이럴 때 좋지 않은 참은 보통 ‘나무참’, ‘물참’, ‘개참’으로 부르지만, 알갱이가 씹히는 맛은 좋은 참을 가리키는 말은 전라도 안에서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쌀참’, ‘떡참’, ‘살참’, ‘가리참’ 등이 이런 예인데, 여기에서도 보듯이 ‘쌀’, ‘떡’, ‘살’, ‘가리’(가루)와 같은 구체적인 사물을 동원하여 참의 씹히는 알갱이

맛을 표현하는 것이 전라도말의 특징인 것이다. 이때 이용된 것들이 모두 먹을거리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축이 단순한 군것질용이 아닌 요깃거리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일상의 사물로 생생한 표현을 만드는 것은 비단 전라도말에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표준말을 비롯한 여러 방언들 모두 비슷할 텐데 다만 이용되는 사물에 차이가 있는 수가 있다. 예를 들어 표준말에 ‘개나 소나’와 같은 말이 있다. 이 말은 ‘개나 소나 차를 끌고 다닌다’처럼 <그럴만한 형편이 아닌 사람조차도> 차를 끌고 다닌다는 비아냥거림을 표현할 때 흔히 쓰는 말인데, 전라도에서는 이때 개와 소 대신 ‘게’나 ‘고둥’을 사용한다. 한때 무스탕이란 옷이 유행한 적이 있었다. 털이 밖으로 드러난 가죽옷인데, 웬만한 사람이면 이 옷을 모두 입고 다녔던 상황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어떤 이가 ‘기나 고둥이나 무스탕이지’라고 비아냥거리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표준말이 가축을 이용해서 표현한 것을 전라도 사람들은 가축 대신 냇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게와 고둥으로 표현한 것이다. 게와 고둥은 개나 소보다 크기도 훨씬 작고 값어치도 없는 것이므로 말하는 이의 비아냥거리는 심정을 표현하기에 더욱 적당한 말이라 하겠다.

‘시루에 물 붓기’라는 속담은 밑에 구멍이 뚫린 시루를 이용하여 아무리 물을 부어도 고이지 않고 빠져 버리는 상황을 묘사한다. 전라도 사람들도 이런 경우 시루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대개는 자루를 뜻하는 ‘차두’라는 말을 써서 ‘밑 없는 차두’라고 한다. 자루에 밑받침이 없으므로 아무리 자루에 물건을 넣어도 도로 빠져 버리는 상황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처럼 동일한 상황을 묘사할 때에도 동원되는 사물이 다른 법이니, 이런 것이야말로 그 지역 사람들이 과연 어떤 물건에 더 익숙한가 하는 삶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4.4. 순수한 우리말

방언은 지역에 사는 소박한 사람들의 소박한 마음을 반영한다.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야 전통적인 생활방식에 익숙하고 그에 따라 밖에서 들어온 외래문화를 받아들이는 데도 더딜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들이 사용하는 말도 자연히 외래어보다는 순수한 우리말을 쓰는 경향이 더 강하다.

여인네들이 신던 버선은 언제부터인가 서양에서 들어온 스타킹으로 대체되어 버려서 버선은 오직 특별한 날 한복을 입을 때에나 신는 골동품으로만 남아 있다. 서양에서 들어온 스타킹은 애초에 그 색깔이 살색과 비슷하였으므로 이 지역에서는 이를 ‘살양말’이라 불렀다. ‘양말’은 ‘양말’의 방언이고 여기에 ‘살’을 덧붙인 것인데, 이제는 더 이상 이런 말은 쓰이지 않고 온통 스타킹(stocking)으로 바뀌게 되었다. ‘살양말’,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인가.

우물에서 두레박으로 물을 길던 시절이 지나간 다음, 손으로 펌프질을 하여 물을 끌어올리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그런데 펌프(pump)라는 영어 대신 이 지역 사람들은 ‘ 짹두시얌 ’이라는 말을 썼다. ‘ 짹두 ’는 ‘ 작두 ’의 전라도말이니, 손으로 펌프질 하는 동작이 마치 짹을 썰던 작두질의 동작과 유사한 데서 이를 차용한 것이다. 새로운 문물이 들어와도 전통적인 문물에 빗대어 이를 표현하던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그대로 드러난 이름인 것이다.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올라가기 위해 우리는 흔히 ‘층계’(層階)나 ‘계단’(階段)을 사용한다. 그러나 전라도 사람들은 이런 경우 ‘딸각다리’라는 말을 쓴다. 계단을 오르다 보면 걸을 때마다 딸각딸각 하는 발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일까? 어쨌든 이 지역 사람들은 층계니 계단이니 하는 한자어 대신 ‘딸각다리’라는 재미있는 말을 만들어 사용했던 것이다.

앞의 인용문에서 ‘인자 양념장을 팬드느디 집이가 매운 것 좋아허믄 장에다 생고추를 몽글몽글 썰어 넣고 알큰허니 허믄 더 맛나.’와 같은 말에 나오는 ‘집이’라는 말도 재미있다. 이 ‘집이’라는 말은 표준말 ‘댁’에 해당하는 말이니, 이 문장을 표준말로 옮긴다면 ‘이제 양념장을 만드는데 댁이 매운 것 좋아하면 장에다 생고추를 잘고 둥글게 썰어 넣고 알큰하게 하면 더 맛있어.’와 같다. 표준어 ‘댁’은 집을 뜻하는 한자宅에서 온 말로서 여기서는 이인칭 대명사로 쓰인다. 그런데 전라도말은 이 경우 한자宅에 대

응하는 순수한 우리말 ‘집’을 사용하여 ‘집이’라는 말을 만들었다. 표준말이 한자를 사용할 때 전라도말은 순수한 우리말을 고집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전라도말은 다른 방언들과 마찬가지로 한자어를 비롯한 외래어보다는 순수한 우리말을 즐겨 쓰고 가능하면 순수한 우리말로 바꾸어 표현하려고 했으니, 이런 점에서 보면 방언을 쓰는 사람들이야말로 우리말의 진정한 지킴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4.5. 아름다운 방언

아무리 못났어도 어머니는 어머니다. 어머니 얼굴이 엷었거나 얼굴에 주먹만한 흑이 붙어 있을지라도 세상에 어머니만큼 예쁜 사람은 없는 법이다. 말도 마찬가지다. 누가 뭐래도 자기가 어렸을 적부터 써 온 토박이말이 제일 편하고 귀하게 느껴지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어떤 방언이 더 아름답다거나, 어떤 방언이 더 기능적으로 효율적이라거나 하는 논쟁들은 무의미하다고 하겠다.

그렇지만 표준말 또는 다른 지방의 말로는 나타낼 길이 없는 섬세한 감정이나 상황을 묘사하는 말이 있다면 그런 말들은 우리말의 어휘력을 풍성하게 해 주는 점에서 귀한 말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말 가운데는 말하는 이의 정을 듬뿍 담아서 상대방을 따뜻하게 하고 사람 사이를 따뜻하게 해 주는 말이 있다. 이 역시 아름다운 말이다. 듣는 이에게 생생한 느낌을 줌으로써 현장감을 살리고 의사소통을 쉽게 해 주는 말, 그리고 우리말의 조어법을 다양하게 해 주는 낱말들은 우리말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는 말이다. 마지막으로 한자어나 외래어가 표현하는 사물이나 개념 등을 쉽고 아름다운 우리말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다면 우리말의 외연은 그만큼 넓어지게 될 것이다. 결국 말이란 토박이말일수록, 섬세하고 생생한 표현일수록, 그리고 사람 사이의 사랑을 깊게 하는 것일수록 그 아름다움이 커진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시골 노인들이 소박하게 사용하는 방언이야말로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가장 아름다운 말인 셈이다.

5. 방언의 이용

현실적으로 방언은 많은 영역에서 쓰이고 있다. 문학작품에서 향토성을 드러내고, 작중 인물의 신분이나 성격 등을 나타내기 위해 방언이 의도적으로 사용되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문구가 전자의 대표적인 작가라면, 조정래의 작품들에 쓰인 방언은 후자의 경우에 해당한다.

방송은 방언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또 다른 영역이다. 최근 지방자치제가 확립되고, 각 지역의 독자성이 중시되면서, 지역마다 지역의 문제를 고발하는 시사 프로그램에서 해당 지역의 방언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MBC의 ‘말바우 아집’, KBC의 ‘따따부따’와 같은 프로그램이 여기에 속한다. 방언은 공동체의 소속원들에게 동질감을 느끼게 하는 가장 강력한 요소이다. 따라서 지역의 문제를 다루는 프로그램이 지역 방언을 사용할 경우, 지역민에 대한 호소력과 감동은 훨씬 커진다. 특히 방언은 서민을 대표하는 표지이므로, 방언에 의한 시사 프로그램은 서민의 고통과 문제를 파헤치는 데는 제격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시골의 촌로들을 찾아가 그곳의 사정을 알아보고 특산품이나 특별한 일들을 소개하는 지역의 프로그램에서도 리포터들은 흔히 방언을 일부러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취재의 대상인 촌로의 말 높이에 맞추기 위함일 것이다.

광주, 전남 지역의 방송 가운데 특히 방언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으로서 광주 MBC의 ‘얼씨구 학당’을 들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애초에 국악을 보급하고 즐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태어났지만, 지금은 이 밖에도 전남의 각 지역을 찾아가 소리를 잘 하는 사람을 발굴하기도 하는 등 전남 지역의 전통 음악을 보급하고 발굴하기 위한 특징적인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사회자는 남녀 두 사람인데, 모두 지나칠 정도의 전라도 방언을 구사하고 있다. 이 지역의 민요나 전통 음악을 배우고 즐기는 프로그램이므로, 그 진행자가 이 지역 언어를 구사하는 것이 가장 잘 어울리기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방언은 해당 지역의 문화와 긴밀한 관계

를 맺고 있기 때문에 문화를 소개하고 다루는 프로그램에 흔히 방언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방언은 특히 신문보다는 방송에서 이용률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당연히 글보다는 말로 이루어지는 방송에서 방언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광주, 전남 지역에는 특별히 방언을 드러내 놓고 사용하는 잡지가 있어 이채롭다. ‘전라도닷컴’이 그것이다. 이 잡지는 원래 웹진에서 출발하여 현재는 웹사이트(jeonlado.com)와 월간잡지의 두 형태로 나타난다. ‘전라도닷컴’은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사람들 특히 평범한 시골 사람들의 삶을 다루고, 시골의 5일장 소식을 전하며, 맛있는 음식과 볼만한 풍광, 그리고 전통적인 사람의 사는 모습 등을 사진과 글로써 소개하는 잡지이다. 기사는 모두 기자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찍은 사진과 녹취한 지역민의 발화, 그리고 기자의 설명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 잡지에 등장하는 지역민의 구술 내용은 그 사람이 발화한 그대로 소개되며, 특히 기사의 제목이 지역 방언으로 된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이 잡지에는 아예 해당 지역의 방언으로만 쓰여진 수필 등도 정기적으로 소개되고 있다. 지역민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지역의 말로 소개하는 것이 이 잡지의 방식인 것이다. 물론 이러한 방식의 잡지는 전국적으로도 결코 일반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잡지가 지역민과 타 지역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애독되고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특히 지방에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문화매체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방언은 또한 상업적으로도 상당한 매력이 있는 원천이다. 특정한 상품 이름을 방언으로써 알리면, 해당 지역 사람뿐만 아니라 그 이름의 생소함 때문이라도 사람들의 주의를 끌 수 있기 때문이다. 글쓴이가 본 상품명으로는 ‘아지미 김치’가 있다. 현대에는 쓰이지 않는 옛말을 이용하여 상품명이나 상호로 삼는 것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덤채’나 ‘이바둑’이 대표적인 경우인데, 이러한 명명 방식은 무엇보다도 그 낯설음으로 인해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쉽다는 데 이유가 있을 것이다. 방언도 옛말과 마찬가지로 타 지역민에게는 생소함, 그리고 해당 지역민에게는 친숙함 때문

에 일정 이상의 광고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상품 이름으로 쓰인 방언이 일반화 되어 나중에는 표준말에 편입되기도 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골뱅이’다. 원래 ‘골뱅이’는 다슬기, 달팽이, 우렁이 등 나선 모양의 껍질을 갖는 고등 종류에 두루 쓰이는 강원도 지역의 방언이다. 특히 통조림으로 상품화하여 상품명으로 쓰인 ‘골뱅이’는 주로 술안주로 쓰이는데, 이것을 즐겨 먹던 사람들 사이에서 골뱅이란 말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이어서 인터넷이 일반화 되면서 인터넷 주소에 쓰이는 영어 at를 가리키는 부호 @의 이름으로 쓰이더니, 마침내 이 말은 표준말로 편입되어 사전에 어엿한 자리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방언은 지역민의 공동체 의식을 드러내고, 그 친숙함과 낯설음으로 인해 광고 효과를 갖는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방언에 대한 이해는 깊을수록 좋을 것이다. 그러나 방언에 대한 이해는 저절로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만 깊어질 수 있는 것이다. 방언이 교육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6. 국어 교육과 방언

국어 교육은 우리말의 지식을 가르치고, 우리말에 의한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목적에 맞게 현재의 국어 교육은 표준어에 대한 지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의사소통 능력 또한 표준어의 구사 능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과서를 통하여 방언을 가르치고 일상생활에서 방언을 사용하라고 하는 것은 국어 교육의 목표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방언은 그 독자적인 가치가 있고, 표준말을 보완하는 어휘의 원천이 되며,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방언을 완전히 국어 교육에서 도외시하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문제는 국어 교육의 목표를 유지하면서 방언을 어떻게 국어 교육의 테두리 안에 포함시킬 것인가

가가 될 것이다. 즉 방언의 어떤 것을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치며, 어느 정도까지 가르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방언에 대한 교육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첫째는 교과서의 일정 부분에 방언에 대한 단원을 넣는 일이다. 지금도 교과서에 방언을 다루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는 교과서 외에 참고 교재 형식으로 방언을 다루는 것이다. 방언은 해당 지역의 문화유산이므로 다른 유형, 무형의 문화유산을 다루는 것과 함께 방언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6.1. 방언의 자긍심을 갖도록 가르치라

교과서를 통해 방언에 대해 가르치는 경우, 방언의 개념과 그 내용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물론 현재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교과서에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국어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방언에 대한 중요성과 그 가치가 더 강조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방언의 성격에서 특히 교육적으로 중시되어야 할 사항은 방언이 표준어에 비해 열등한 언어가 아니라는 사실일 것이다. 오늘날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서울에 가서 가장 흔히 겪는 고통 중의 하나가 방언 때문이다. 많은 지방 사람들이 때로는 놀림감이 되고, 때로는 기가 죽는 경험을 겪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방 사람들에게 방언 어휘를 설명하면서, 그 뿌리가 우리의 옛말에 닿아 있다는 예를 들어 주면, 매우 놀라워하는 것을 실제로 경험한 바 있다. 즉 자신의 말이 서울에 살던 옛날 사람들의 말에 가깝다는 사실에서 더 이상 자신의 말이 서울말과 동떨어진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일종의 자긍심을 되찾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포도시’는 ‘겨우’라는 뜻을 갖는 전형적인 전라도말인데, 대부분의 전라도 사람들은 이 말이 표준말 ‘빠듯이’와 어원이 같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상한 말을 쓴다는 의식을 가진 채 ‘포도시’를 사용해 왔지만, ‘포도시’와 ‘빠듯이’가 모두 옛말 ‘뱃드시’에서 변화된 것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이

말을 쓰면서 결코 주눅이 들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옛날에는 한 말이었던 것이 세월이 흐르면서 형태나 의미가 조금 달라졌을 뿐이니까.

방언 사용자들에게 이러한 언어적 자긍심을 심어 주는 일 못지않게 표준어 사용자들로 하여금 방언과 표준어가 기원적으로는 한 뿌리에서 출발하였다는 사실을 깊게 인식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표준어는 편의상 정해 놓은 것일 뿐 그 자체가 절대적 가치가 있어 그리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다. 물론 표준어 사용자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객관적, 과학적 사실을 알더라도, 방언에 대한 비하적 감정을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은 크다. 그렇지만 방언의 언어학적 가치를 알려 주는 것은 그 나름의 의의가 있는 것이다. 특히 지방의 학생들에게 방언이 옛 서울말과 기원을 같이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면, 최소한 말 때문에 주눅이 들 이유는 그만큼 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6.2. 방언의 어휘력을 가르치라

방언이 표준어와 동일한 기원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일은 방언에 대한 소극적, 방어적 교육이라 하겠다. 이에 반해 방언에는 표준어에 없는 다양한 표현들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침으로써 방언에 대한 적극적, 공격적 교육의 자세도 필요하다고 본다. 사실 방언에는 표준어가 표현할 수 없는 의미 영역을 담당하는 어휘들이 많다. 전남 방언에 쓰이는 ‘호습다’가 그러한 예일 것이다.⁴⁾ 이 말은 우리가 흔들거리는 물건을 타면서 느끼는 기분을 뜻하는 말이다. 그래서 그네를 타거나, 포장이 안 된 도로를 달리는 버스 안에서 느끼는 출렁거림 따위가 우리에게 심리적으로 주는 즐거움 등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아이가 탄 그네를 뒤에서 밀면서 업마는 아이에게 느끼는 즐거움의 여부를 물을 때 표준어라면 응당 ‘재미있나?’ 정도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재미있다’가 나타내는 의미

4) 전남의 일부 지역에서는 ‘호시다’, ‘호상지다’와 같은 말이 같은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의 영역은 너무 넓은 것이 흠이다. 책, 영화가 주는 즐거움도 재미있을 수 있지만, 사람의 성격도 재미있을 수 있고, 심지어는 사람의 생김새조차 재미있다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넓은 영역을 맡고 있는 ‘재미 있다’의 한 부분을 ‘호습다’는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은 오직 몸의 흔들거림이나 출렁거림이 주는 유쾌한 기분을 나타낼 때에만 쓰인다. 표준말에는 이러한 경우에만 제한되어 쓰이는 말이 없기 때문에 ‘호습다’와 같은 말들은 사실 표준어에 편입시켜도 좋을 말인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다양한 방언형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방언형 가운데 어느 것을 표준말로 편입해야 할 것인지는 계속 어려운 문제로 남기는 한다.

6.3. 방언이 무형의 문화유산임을 가르치라

방언이 그 지역의 무형 문화유산이라는 사실을 교육시켜야 한다. 역사의 경우, 그 지역의 문화재 등에 대한 교육이 있어 왔지만, 방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본격적인 교육이 있지는 않았다. 따라서 지방마다 그 지역의 방언적 특징과 구체적인 낱말, 표현들을 담은 보충교재 등이 만들어져, 표준어 교육과 함께 따로 교육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방언을 일부러 사용하라고 강요하지는 않더라도 방언 사용자들을 이해하고, 방언을 활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식, 그리고 자기 고장 말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갖출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6.4. 방언이 공동체의 표지임을 가르치라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면 공동체의 의식이 느껴진다. 방언을 쓰는 사람에게 표준어로 말하게 되면 그만큼 거리감을 주게 된다. 성공적인 의사소통이란 곧 말하는 사람과 상대방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이루어지는 법이다. 따라서 상대방의 말 높이에 맞출 수 있으려면

상대방이 말하듯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글썽이가 다니는 성당의 신부님은 미사의 강론 중에 일부러 방언을 사용하는 수가 있다. 표준말로 진행되던 강론에 ‘냅두씨요, 어쩐가 보게?’와 같은 지역 토박이말이 도입되면, 신자들은 저절로 웃음을 띠게 되고, 신부와 신자는 마치 동일한 위치에 서게 되는 듯한 느낌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신부는 신자보다 높은 자리에서 강론을 하게 되지만, 적어도 방언을 쓰는 동안에는 높이가 같은 자리에 서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이다. 이처럼 지방의 서민들을 대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그 지역 사람들의 방언을 이해하고 구사할 줄 알아야 그들의 마음을 얻게 된다. 따라서 지방에서 영업사원이나 장사하는 사람들, 노인 상대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 지역 말을 제대로 구사할수록 얻는 이득이 많을 것이다.

6.5. 방언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음을 가르치라

동일한 낱말이 방언에 따라 다른 지시물 또는 다른 의미를 갖는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자네’는 대부분의 방언에서 나이 든 아랫사람에게 사용하는 2인칭 대명사이다. 그러나 전남의 일부 지역에서는 나이차가 많지 않지만 친근한 관계에 있는 순위 사람에게 이 말을 쓰는 수가 있다. 예를 들어 가족 안에서도 누나나 오빠, 형들에게 쓰일 수 있고, 또한 친근한 학교나 직장 선배에게도 쓰일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용법에 익숙한 사람이 친근함을 표현하기 위해 타 지방에서 온 직장 선배에게 이 말을 쓸 경우, 두 사람 사이에는 인간관계의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은 순전히 상대방 방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오는 결과이다. 비슷한 예로서 함경도 방언의 ‘큰아바이’는 백부가 아니라 할아버지를 뜻하는 말이고, 강원도 방언의 ‘아재’는 고모와 같은 여자를 가리키는 점에서 전라도 방언의 ‘아재’와는 전혀 판판의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동일한 지시물이나 의미에 대해 방언들이 각각 다른 방언형을 쓴다는 사실과 함께 같은 형태의 방언형이 방언에 따라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도

이해할 때 비로소 사람들 사이의 조화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7. 맺으면서

방언은 해당 지역 사람들의 삶과 역사, 문화가 녹아 있는 무형의 문화 유산이다. 그러므로 이처럼 소중한 방언이 표준어를 교육하는 과정에서 사라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국어 교육의 현장에서 방언을 적극적으로 가르치는 일도 본래의 교육 목적에 맞지 않는 일이다. 아무리 방언이 귀한 문화유산이라 할지라도, 표준어 교육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잃지 않을 정도로 제한된 범위 안에서 가르칠 필요가 있다.

방언의 교육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교과서 안에서 방언의 개념과 가치, 표준어와의 관계, 그 역사성 등을 가르치는 것이다. 적어도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이 자긍심을 잃지 않을 정도의 방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교과서가 아닌 참고교재 안에 방언에 대한 지식을 담는 일이다. 이러한 교재는 방언이 쓰이는 지역마다 따로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교재 안에 해당 방언의 체계적인 내용을 담아서, 자기 지역의 방언에 대한 대강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마치 자신이 사는 지역 안에 있는 역사적 유적이나 문화재 등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듯이, 같은 차원에서 방언에 대한 지식을 갖추는 것이다. 이 교재 안에는 해당 지역의 방언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방언 가운데서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어휘들에 대한 정보도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 특히 형태가 같으면서 기능이나 의미가 다른 어휘들에 대해 이해함으로써 다른 방언 사용자들 사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충돌을 미리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 본 논문은 2009. 6. 23. 투고되었으며, 2009. 7. 5. 심사가 시작되어 2009. 7. 26.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김세중(2004), 「표준어 정책에 대하여」, 『새 국어생활』 14권 1호, 국립국어원.
- 이기갑(2007), 「전라도말의 아름다움」, 『말과 글』 111호, 한국교열기자협회.
- 이기갑(2008), 「농촌 지역의 이주 외국인 여성들을 위한 방언 교육—전라남도 지역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글』 280, 한글학회.

<초록>

국어교육과 방언

이기갑

방언을 표준어와 대립되는 언어, 즉 비표준어로 이해했을 때, 표준어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국어 교육에서 방언이 차지할 자리는 없다. 그러나 방언은 독자적인 체계를 갖춘 언어이며, 해당 지역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반영하는 다양한 어휘들을 보유하고 있다. 방언은 생생한 표현력과 그것을 말하는 사람들의 정감이 그대로 반영된 아름다운 우리말의 전형이다. 또한 문헌이 보여 주지 못하는 언어의 선사 시대까지 언어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게 만드는 귀중한 언어 자료들이 방언에 남아 있는 수가 많다. 이러한 가치를 갖는 방언을 단순히 표준어가 아니라는 이유에서 홀대하고 폄하하는 일은, 우리말의 다양성을 해치고 소중한 무형의 문화유산을 파괴하는 문화적 비극이라 부를 만하다.

그러므로 학교 현장에서 방언을 일정 부분 교육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방언을 교육할 때는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자긍심을 잃지 않도록 우리말의 다양성에 대해 가르칠 필요가 있다. 또한 방언의 풍부한 어휘력과 방언이 무형 문화유산이라는 사실도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밖에도 방언은 해당 지역민을 공동체로 한데 묶는 표지의 구실도 하며, 방언이 고유한 체계를 갖기 때문에 서로 다른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할 때에는 상대의 언어 체계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도 가르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언어적 차이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이다.

【핵심어】 방언, 표준어, 국어교육, 문화적 비극, 문화유산, 공동체의 표지

<Abstract>

Korean Dialects in Teaching Korean Language

Lee, Ki-gap

Dialect has been thought to be a non-standard, discourteous language. However recent investigations show that there are lots of positive aspects in Korean dialect. Most of all, Korean dialect has more expressive capability than standard Korean in that dialect often has words having no semantic equivalents in standard language. It tends to use more native words than standard language which favors Sino-Korean or foreign words. Therefore if Korean dialect gets a chance to be taught in school, young Korean generation can learn the following facts.

(1) Even though one speak in dialect in capital city or other places outside of his or her native area in Korea, he or she doesn't have to suffer from an inferiority complex. For every dialect as well as standard language has its own system and equal value.

(2) Because a dialect is a mirror which reflects culture of a region, if one learn the dialect, he or she can understand the mind, culture and people of the region.

(3) A dialect is a marker of the community by which members of the community can tell themselves from other people. Therefore the best way to touch hearts of the members is to communicate in the same dialect.

(4) Misunderstanding from dialectal difference sometimes creates emotional conflicts among the speakers of different dialects, which could be settled easily if one had a knowledge of the dialect.

[Key words] dialect, standard language, inferiority complex, cultural heritage, community marker